

썰렁한 '유니클로' vs 매출 오른 '탑텐'... 유통업계 희비

100여 곳 브랜드 불매목록에 올라 모나미 등 토종기업 반사이익 수혜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유통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불매운동 목록에 오른 기업은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대체재로 떠오른 토종 기업들은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촉발된 원인은 일본이 지난 1일 발표한 대(對) 한국 수출 규제 조치 때문이다. 일본과의 역사적 갈등으로 인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보다 장기화될 것으로 유통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8일 "불매운동이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났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주말을 지나면서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판매자부터 소비자까지 동참

앞서 지난 5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한국마트협회 등은 일본제품 판매 중단을 선언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마트는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 일본산 제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내



8일 서울 은평구의 한 식자재 마트에 일본 제품을 팔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걸었다.

판매자들이 자발적으로 불매운동에 앞장서면서 소비자들의 동참도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난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일본 경제 제재에 대한 정부의 보복조치를 요청합니다' 청원글은 8일 오후 3시 기준 3만 3500명 이상이 동참한 상태다.

일부 소비자들은 온라인 상에서 일본 기업을 정리한 불매운동 목록과 함께 '보이콧 재팬(BOYCOTT JAPAN)' 등 문구가 적힌 이미지를 전달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해당 기업은 100여 곳으로 ▲유니클로 ▲ABC마트 ▲무인양품 ▲세븐일레

븐 ▲미니스톱 ▲포카리스웨트 ▲조지아 ▲아사히 등 음료·주류 브랜드 등이다. 의류업체부터 편의점, 음료·주류업체까지 다양한 브랜드가 불매 목록에 올랐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는 불매운동 포스터 이미지에 #불

매운동' 등의 해시태그를 붙인 게시글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조심스럽다"... 지켜보는 日 기업

불매 운동이 확산되면서 일본 기업들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아직까지 매출에서 큰 타격은 없지만, 이전과 달리 장기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주말 은평 롯데몰에서 만난 한 소비자는 "유니클로에서 옷을 자주 샀는데, 다른 브랜드에서 구매해야 할 것 같다"며 발길을 돌렸다.

일본 패션 브랜드의 관계자는 "지금 선불리 움직였다간 기름을 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잘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내 기업은 웃음꽃이 폈다. 일본산 문구류, 의류, 맥주 대신 국산품을 구매하는 움직임이 일면서 국내 문구기업 모나미, 의류기업 신성통상 등의 주가가 올랐다.

실제, 신성통상이 운영하는 SPA 브랜드 '탑텐(TOPTEN10)'이 최근 출시한 '광복절' 티셔츠에 대한 반응도 불매운동 이후 더욱 좋아졌다. 탑텐 측 관계자는 "탑텐은 매년 역사 관련 아이템을 선보이고 있어 불매 운동을 염두에 두고 '광복절' 티셔츠를 출시한 것은 아니"라면서 "그러나 불매 운동을 기점으로 SNS를 통한 소비자 지지가 확실히 늘었다. 응원 댓글이나 리그램 등이 늘어난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일본 기업과 토종 기업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업계는 최대한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일본 기업의 매출 타격을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지켜봐야 한다"며 "패션의 경우 완전경쟁시장이라 일본 브랜드를 사지 않는다고 해서 국내 브랜드로 수요가 100% 전환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항공업계, 최대 성수기 3분기 직격탄

반일감정 고조... 관광객 확보 난항

국내 항공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저비용항공사(LCC)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지난 2016년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이 큰 폭으로 감소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일본 노선을 크게 늘렸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일 감정이 최고조로 치달으며 탑승객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 온라인을 중심으로 일본 여행을 자제하는 여론까지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국제선 68개 노선 중 22개 노선이 일본 노선이고, 진에어는 국제선 28개 노선 중 9개 노선, 티웨이항공은 국제선 53개 노선 중 23개 노선이 일본 노선이다. 국내 LCC의 일본 노선에 대한 의존도는 높은 상황이다.

대형항공사(FSC)들의 경우 일본 노선 매출이 10% 초반이지만, LCC들의 매출 비중은 약 30%에 달한다.

이에 따라 최근 한일 관계 악화로 항공업계의 3분기 실적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도 불안하다. 특히 일본을 찾은 우리나라 관광객이 올 초부터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어 반일 감정까지 겹칠 경우 항공업계의 수익악화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일본에 입국한 한국인은 32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 가까이 감소한 수치다. 최근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보복



제주항공 항공기.

으로 양국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는 과정이어서 국민의 '일본여행 거부' 운동이 겹친다면 올해 일본을 찾는 한국인 수가 8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현재까지 눈에 띄게 감소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항공업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현재 항공권을 예매했다는 현지 호텔이나 모든 여행 경비를 지출한 상태인데 취소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 여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경우 여행객은 3분기부터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항공업계 최대 성수기가 3분기인데 수익성 악화는 불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가 내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지나치다고 판단, 지난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핵심 소재 3종류의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발표되면서 한국은 첨단 소재 등의 수출 절차에서 번거로운 허가 신청과 심사를 받게 됐다. 이는 약 9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 /양성운 기자 ysw@

대우위니아 그룹

“창립 20주년 새롭게 출발합니다”

20년간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온 대우그룹이 **대우위니아그룹**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더 높은 삶의 질을 경험해보세요

- ▶ 위니아딤채
- ▶ 위니아대우
- ▶ 위니아SLS
- ▶ 대우동베르켄트리클럽
- ▶ 스마트저축은행
- ▶ 대우에이텍
- ▶ 대우플러스
- ▶ 대우에이피
- ▶ 대우글로벌
- ▶ 대우힐스